

지식대중 이끌 20세기 사상의 총합

기획시리즈 '입장총서' 1차분 4권 첫선보여

오늘의 사상은 세계질서의 스펙터클한 전환과 맞물려 새롭고 복잡한 출현양상을 노정한다. 모든 가치, 모든 이념들이 무너지는 한편으로 이념의 과편들은 새로운 빛을 발하며 이 혼란한 시대를 비춘다. 낡은 전통의 와해를 촉발했던 선두주자들, 마르크스와 니체·프로이트 이후 20세기 사상과 이론적 핵심을 정리한다는 의도로 기획된 '입장총서'(도서출판 솔)는 저마다 광채를 띠고 있는 국내외 거장들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이즈음 신선하게 주목받는다.

독자적 이론 체계화한 55인 선정

문학평론가 정과리씨(충남대 불문과 교수)와 철학자 김진석씨(인하대 철학과 교수)가 기획을 맡은 '입장총서'는 문학·예술·철학·사회과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체계화한 사상·이론을 모두 55인의 인물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각 인물들의 개인적 삶과 이론 형성과정의 관계를 유연히 이해하기 위한 상세한 연보와 논문·저술이 이뤄진 사회상황을 설명한 글, 사진화보도 함께 실게 된다.

현재까지 모두 22권이 기획된 이 시리즈는 최근 백낙청의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을 첫 권으로 시작해, 루이 알튀세르의 「아미앵에서의 주장」(김동수 옮김) 김병익의 「두 열림을 향하여」, 자끄 데리다의 「입장들」(박성창 편역)이 1차분으로 선보였다.

한국평단의 대표적 논자로 꼽히는 백낙청의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에는 70년대 지식사회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민족문학론과 그가 일관된 주제로 제기해온 리얼리즘, 모더니즘에



관한 논고들을 담았다.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논평' 속에 녹아 있는 그의 과학에 바탕을 둔 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다. 또다른 입장의 한 기동으로 자리하는 김병익의 「두 열림을 향하여」는 「한국사회 문학에 있어서의 반지성적 전체주의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지성의 회복과 신장」이라는 울림을 전하는 대표적인 논평들을 모았다.

기존 마르크스주의에 근원적 비판을 제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었던 루이 알튀세르의 「아미앵에서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이론적 난점을 밝히는 동시에 마르크스즘과 노동운동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역설한다. 또 절대진리의 부정을 통한 프로이트와 니체의 해체적 성향을 고도의 복합적인 사유체계로 정립시킨 자끄 데리다의 「입장들」에서는 당대

의 지배사조였던 구조주의의 '단한 체계'를 비판, 문학과 철학·미술·조형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열린 사고'의 지향을 보여준다.

이 시리즈의 목록에는 삐에르 부르디외, 안토니오 그람시, 레이몬드 윌리엄즈, 장 보드리야르, 롤랑 바르뜨, E.P. 톰슨, 위르겐 하버마스, 질 들리즈, 게오르그 루카치, 발터 벤야민, T.W. 아도르노, 자끄 라캉 등의 서구사상가와, 모택동·노신을 포함하고 김우창·김지하·김윤식·김현 등 국내 문학평론가들의 명단이 예정돼 있다.

이들을 일별하면 '새로운 프랑수아학파'로 명명되는 신구조주의와 마르크스의 인식론적 해석 지평을 열어보인 네오마르크스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지적·미학적 탐색과 문

학사회학적 사상계적 등으로 조감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데리다의 「입장들」은 국내 번역으로는 처음 소개되는 1차텍스트이거나 부르디외나 라캉 등 원전으로는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한 면모도 들어 있어 고급 독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봉재씨(한양대 철학과 강사)는 "필요했지만 없었던 기획"이라는 점에서 시리즈 간행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지금까지 기획된 목록으로는 유럽 편향이라는 느낌이다. 사상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칼 포퍼나 존 롤스, 리처드 로티 같은 영미계열의 수정자유주의사상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인물은 거의 문학평론가인데 8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논쟁도 많았으니만큼 충분히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식대중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작업

이 총서의 또다른 국내적 배경은 "우리나라 지식대중의 사회과학 혹은 인문과학으로부터의 이탈현상에 대한 일종의 반성작업"에 있다. 80년대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배타적·편의주의적 대결구도'와 '지식대중의 무관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선명한 내세움 속에서 자신의 긴박한 위기"를 동시에 보여준 이 입장들의 편차를 읽어냄으로써 우리시대 독자는 굳어져 버린 '독단의 확신'과 '환멸에 빠진 회의주의'를 부술 수 있는 삶의 힘을 기대함 직하다.

— 김지원 기자

정신세계사에서 운영하는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진짜 책방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명상음악이 흐르는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에서 하루종일, 책에 관한 문의에 응답도 해 주고, 원하는 책을 찾아 주기도 하며, 계산대에서 책값을 받기도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을 좋아하고(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공부도 대학졸업할 정도는 한(수준높은 독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곳이므로), 나이 28세 미만(정열적으로 일해야 하므로)의 남자나 여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사진이 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번호 110-070 서울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육빌딩 502호 정신세계사 정주득 앞으로 2월 10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책방 정신세계의 통신판매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적주문예탁금(2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서, 가입신청서(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은 편지)를 책방 정신세계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책방 정신세계의 통신판매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탁금은 이후로 주문하는 책의 대금으로 쓰이게 되며, 탈퇴할 때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031-21-0418-366
 - 농협: 029-02-093816
 - 중소기업은행: 277-13-0006-728
- 예금주명은 모두 '정주득'입니다.

2. 회원이 되신 후에는 책방에 구비된 서적의 안내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게 되며, 언제든지 전화나 엽서, 편지, 팩시 등 편한 방법으로 예탁금 한도 내에서 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책은 우편으로 배달되며, 우송료는 책방에서 부담합니다. 다른 출판사에 발행된 책은 할인되지 않지만, 정신세계사에서 발행된 책은 20%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방 정신세계

정신세계사가 운영하는 정신세계 전문서점/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100 영림빌딩 2층/전화 741-7033/팩시 741-7034